

인간의 삶을 통해 시대를 반추한다

〈침묵의 소리〉 감독 일로나 지오코



● 〈침묵의 소리〉는 소재만으로도 배후적인 영화다.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모이는 포럼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었다. 그때 지금 이 영화의 공동프로듀서가 기획안을 발표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당시 98세였던 쉰머벨트씨가 제작도중 사망할 것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나는 이 영화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함부르크의 NDR TV에게 편당을 요청하여 이 기획을 추진했다. 그쪽에서는 나에게 전권을 일임하는 대신 '1시간이상의 영화를 찍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만약 완성하지 못하면 다시는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하더라.(웃음) ● 〈침묵의 소리〉는 다큐멘터리이면서도, 드라마적인 요소와 유미가 풍부하다. 특히 연주 중인 쉰머벨트의 얼굴을 담는 장면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나는 이 작품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픽션영화를 공부한 사람이고, 그 때문에 항상 스토리텔링과 드라마 트루기를 먼저 생각한다. 어디에 하이라이트를 배치할 것인가, 거기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갈 것인가가 내 작업의 가장 큰 고민이다.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대부분의 정통 다큐멘터리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나는 웃음과 눈물을 주려고 노력한다. 전쟁과 같은 강한 소재보다는 소소한 일상을 관찰하면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매력 있다. 나는 정통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직접 고개를 끄덕거리며) 졸곤 한다.(웃음) ●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쉰머벨트가 연주했던 영화의 장면이 그의 과거, 현재와 교차되는 부분들이다. 어떤 의도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 영화와 음악은 쉰머벨트의 인생 그 자체다. 그는 자신이 연주한 작품들 가운데 에밀 제닝스의 〈마지막 웃음〉을 가장 좋아한다. 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늙은 도어벤과 80년이 지난 지금 102살의 영화음악가 빌리 쉰머벨트를 함께 떠올리며 전을했다. 나는 사람은 죽어도 예술은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쉰머벨트는 버지니아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음악을 연주한 영화에서 그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침묵의 소리〉는 쉰머벨트의 음악을 영원히 보존하자는 의미가 크다. 그는 현재 영화의 탄생부터 100년의 역사를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다. 그를 보존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 당신의 1968년 자전 〈커트 게론의 회전목마〉도 무성영화시대의 스타를 다룬 작품이다. 〈침묵의 소리〉와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커트 게론은 배우이자, 가수였고, 영화감독이었던 만능엔터테이너였다. 그는 에밀 제닝스의 〈푸른 천사〉에도 출연했다. 매우 유명한 스타였지만, 유대인이었던 그는 나치에 의해 수용소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했다. 쉰머벨트가 시대적인 불운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의지를 관철시킨 사람이라면, 커트 게론은 나치에 의해 예술성이 파괴된 사람이다. 두 영화 모두 그들에서 시작하여 그 시대를 다루고 있다. ●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어떤 이야기인가. 얼마 전 〈백작과 동지〉를 마무리했다. 귀족과 공산당원이었던만큼 한때는 적이었던 이들에겐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공동의 적이 생겼다. 심지어 공산당원은 자살을 시도했던 귀족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그들의 아이러니한 인생변화를 교차시키는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프리즈 바우에'라는 전후 독일의 한 지방검사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전쟁 후 처음으로 등장한 민주주의자였다. 당시로서는 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68년 자신의 집안 욕실에서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프리즈 바우에 뿐만 아니라 함께 활동하던 다른 2명도 모두 욕실에서 죽었다. 그들 역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나는 그가 왜 죽었는지를 추적할 생각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CSI같은 과학적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진다. ● 그 두 작품 역시 〈침묵의 소리〉처럼 결국에는 시대를 반추하려는 목적인 것 같다. 나는 사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 사람을 넘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재에 매혹을 느낀다.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인생사를 살펴볼 수도 없는 사람들 말이다. 내 영화에서 그들은 모두 당시의 시대를 비추보는 '거울'들이다.

글 강병진 · 사진 손흥주